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확대회의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확대회의의 지도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확대회의가 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리병철부위원장과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군종 및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과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일부 무력기관의



인민군지휘성원들의 정치의식과 도덕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회의에서는 인민군대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에서 혁명규율과 도덕기풍을 세우는것을 현시기 당중앙의 령군체제를 철저히 확립하고 전투력을 강화하며 혁명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우월성을 발양하기 위한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도높이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무력기관의 주요직제지휘성원들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의 군사정치활동과 도덕생활에서

부부장들이 참가하였다. 제기되는 일련의 결함들을 지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회의에서 군사활동의 성과와 관련되는 운명적인

아니라 인민군대의 존망과 군건설과 회의에서는 또한 주요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결정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인민군대안에 혁명적인 도덕규율을

인민군대안에 혁명적인 도덕규율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문제가 주요하게

인민군대안에 혁명적인 도덕규율을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 중대한 문제의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 중대한 문제의 채택하였다. 해결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새세대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시었다

일본 도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동지 앞

존경하는 허종만동지,

나는 의장동지의 생일 86돐을 맞으며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의장동지는 우리 조국이 가장 큰 고난을 겪던 시기에 재일조선인운동의 중하를 떠맡아 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견결히 수호하고 자랑스럽게 빛내인 참다운 해외혁명가의 귀감입니다.

우리 당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발전행로에 력력히 새겨져있는 의장동지의 특출한 공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나는 의장동지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사의 각오로 헤쳐가신 불멸의 자욱을 따라 조국의 동부산악 2,500리의 행군길에 올랐던 24년전 그때의 그 정력으로 귀중한 우리 총련을 위하여, 사랑하는 재일동포들을 위하여 더욱 용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결한 충의지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장동지의 귀체만강과 부인을 비롯한 온 가정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 정 일

주체110(2021)년 2월 22일

평양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해외동포들이 뜻깊게 경축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이 16일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부회장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은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협회가 단동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참가자들은 한평생 조국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행복

을 위하여 애국헌신의 한생을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편지채택모임이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성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참가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해나가는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결의를 표명하였다.

한편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협회성원들은 노래 《2월은 봄입니다》를 부르며 뜻깊은 광명성절을 경축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12일 로씨야고통련청사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로씨야고통련 성원들과 동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로

씨야협회 성원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김철성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의 축하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발전봉부화하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새세계를 바라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신 위대한 스승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침략위협과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발전시켜오신 그이의 업적을 영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있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이어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석성로씨야고통련 1부위원장이 정중히 진달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석성 로씨야고통련 1부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진행정형과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들도 상세히 언급하였다.

재로동포예술인들의 공연도 있었다.

공연무대에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무용 《부채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본사기자

주체전축의 본보기

인민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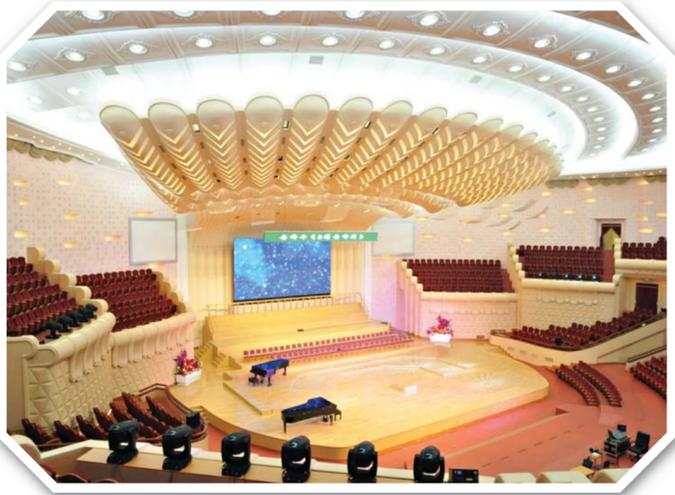
◇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은백색의 특색있는 건축물인 인민극장이 자리잡고있다.
원형으로 된 극장의 정면은 주름잡힌 푸른색의 대형유리벽체로 되어있는데 마치도 열려진 손뭉침의 풍광을 보는듯하다.
우아함과 웅장함, 정교함이 조화된 인민극장의 연건축면적은 5만여㎡이다.
극장에는 최신식무대로부터 편의봉사시설에 이르기까지 예술창조와 공연활동, 관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 인민극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오셨으며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특별히 관심하시던 대상이다.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 모든것을 안겨주고싶으신 마음이 강렬하시어 이 극장건설을 생각하고계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극장에 인민이라는 뜻깊은 이름을 붙이도록 하시고 명당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었으며 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을 장시간에 걸쳐 현지지도하시면서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께서 대기념비적건축물인 극장을 보시셨으면 대단히 만족해하시었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주제101(2012)년 4월 인민극장에서는 개관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류현철



일류급대학, 연구형대학을 목표로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자들이 대학을 일류급대학, 연구형대학으로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실질적인 방도를 찾으며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무엇보다 학술기구체계를 개선완비하고 학문구조를 종합적으로 갖추어나가고있다.
대학에서는 연구형대학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학문구조를 갖추기 위해 새로운 학부와 연구소, 강좌들을 추가로 내고 새 학과목들을 가르칠수 있게 과정안을 갱신

하고있다.
이를 위해 학과구성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생물기술, 나노기술, 인공지능기술, 새 재료기술, 새 에너지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부분의 학과들을 개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도록 학과 및 전공만 구성을 근본적으로 갱신해나가고있다.
또한 학문구조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종합적으로 갖추기 위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기초 및 응용

과학이 결합된 학부, 학과들을 새로 내오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우고있다.
그리고 전공부문별로 세계적인 교육과정안들을 분석종합한데 기초하여 수십개의 학과목들의 교육내용을 세계 일류급대학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대학에서는 전공교육과 실천실기교육을 강화할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과학기술교육을 지식전수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방법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대학에서는 현대교육발달추세에 맞게 새로운 공학교육방식을 도입하는데서 나서는 교수방법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기간 창조도입한 교수방법들을 구체적

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교육과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된 새 교수방법들을 적극 창조도입하고있다.
특히 대학의 교원들이 창안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빠른 시일안에 전국에 일반화할수 있도록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현대교육기술을 리용하여 전자직관물들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조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이 과정이 곧 교수의 설계과정, 새 교수방법창조과정으로 되게 하고있다.
그리고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실현을 밀접히 결합하여 모든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도록 하며 학생들에 대한 실력평가방법을 개선해나가고있다.
이 과정에 컴퓨터시각시험, 소문분발표시험 등 여러가지 시험방법들이 새로 도입되어 학생들에 대한 실력평가방법이 보다 완성되고 학습열의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

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정면과과업을 과학기술로 확고히 담보하는데서 대학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이국 교육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일류급대학, 연구형대학으로 건설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명당자리, 명승지마다에 (1)

명당이란 흔히 필요한 객관적조건을 다 갖춘 좋은 땅으로 예로부터 누구나 탐내는 곳으로 일러왔다.
현대에 와서도 그 관념은 사라지지 않아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그 나라의 제일가는 명당자리에는 정부급건물들이 들어서거나 가문의 영광, 기업과 공업을 바라보는 재벌들의 집이나 별장, 유흥장 등이 독차지하는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명승지도 마찬가지이다. 요산요수라 산수의 경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조국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였다. 제일 좋은 명당자리와 명승지에 아이들을 위한 궁전과 야영소들이 꾸려져있는것이였다.
나의 눈앞에 제일먼저 떠오르는 명당자리는 평양의 이름난 명당자리이다.
해발높이 35m로서 평양의 남서쪽의 남산과 북쪽의 만수대재.
장대재는 하나의 큰 구름으로 되어있으며 경치 좋고 전망이 참으로 기막힌 곳이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우뚝 일떠서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로 누구나 우리러보게 하는것이 다름아닌 아이들의 궁전-평양학생소년궁전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 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대동문영화관에서 어린이들이 준비한 설맞이공연을

보아주시었다.
시종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공연을 보아 주시던 주석님께서 문득 곁에 있는 일군들에게 이야기하시었다. 아이들이 뛰놀기에는 대동문영화관이 너무 좁은것 같다고.
그러시고 무릎우에 앉으신 어린이에게 물어보시는것이였다.
《새 궁전이 있으면 좋겠지.》
기쁨에 넘쳐 씩씩하게 대답하는 어린이.
《예,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정겹게 바라보는 주석님의 심중에는 아이들의 화려한 궁전에 대한 념원이 짙 차있었다.
해방후 애국적인 상공인들이 삼가 올린 건국희사금으로 평양의 명당자리로 불리운 장대재에 아이들의 궁전을 짓도록 하시고 개관을 앞두었던 궁전이 전화의 불길속에 폐허가 되었을 때에는 대소환의 추위로 마다하지 않았고 그곳을 찾으며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궁전을 더 크고 더 훌륭하게 지어줄 구상을 펼치시던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뜻깊은 그날에 위대한 주석님께서 제일 좋은 곳에 아이들을 위한 궁전을 짓고 그 제일 높게 지어주라고 하시며 아이들에게 새로 지은 궁전에서 다시 만나자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었다.
궁전건설이 진행될 때에 주석님께서 건설장을 찾으시어 우리가 그전에 산에서 싸울 때부터 아이들을 위해 궁전을 세워주라고 늘 이야기해오지 않았는가, 대리석이 건 금강석이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축재료를 다 가져다가 맡고대려 궁전을 지어주라고도 하시었다고 한다.
하여 1963년 9월 연건축면적이 5만㎡에 달하는 웅장화려하고도 현대적인 건물에 각종 소조실들과 극장, 체육관, 도서관 등을 갖춘 종합적인 과학교육교양기지로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일떠서게 되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는 해마다 많은 과학자, 기술자, 예술인, 체육인후비들을 키워가고있다.
과외교육교양기지에서 희망의 나라를 활짝 펴고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어제

날의 소조원들속에서 수많은 로력영웅, 박사,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인민배우, 공훈배우,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등이 배출되었다.
조선의 명승 송도원도 떠오른다.
필라도 편만하여보았지만 송도원은 겨울같이 맑은 동해의 푸른 물결, 뜨거운 햇빛에 눈이 부신 백사장, 그우에 떨기들과 피어난 붉은 해당화 그리고 지심질이 뿌리를 내리고 푸른 가지를 펼친 락락장송들이 천연의 조화를 이루고있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곳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송도원은 예로부터 동해의 명승으로 널리 알려져왔다.
한때 일부 설계일군들이 그 자리에 외국 국가수반들이 와서 목에 하는 정부초대소 내각휴양소를 지으려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아시게 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가 참으로 명당자리라고, 의사들의 맘에 의해서 일대의 풍기가 참으로 좋다고 한다. 그렇게 풍기가 좋다면 아이들의 야영소를 지어주어야

위대한 과학, 위대한 문화

맛과 향기가 뛰어난 과일 가공품들

공화국의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갖가지 과일가공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딸기를 비롯한 과일들로 사과발효식초, 사과즙, 배즙, 사과단물, 배단물, 복숭아단물, 종합과일단물을 비롯한 수십여가지의 과일음료제품들과 사과말린편, 배말린편, 과일단물, 단종임, 드롭프스 등 여러가지 과일가공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이 공장 제품들은 하나같이

맛이 좋고 건강증진에도 리로운것으로 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식료품으로 되고있다.
현대적인 과일가공설비들을 갖춘 공장에서는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호르몬화되어있으며 생산환경의 무균화, 무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있다.
이 공장의 과일가공품들을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맛과 향기가 좋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본사기자



《총각아버지》, 이는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신천군의 한 청년에 대한 부름이다.
그의 이름은 권순남. 신천군 북우교공중학교 청년동맹, 소년단책임지도원으로 일하고있다.
《우리 군사사람들은 그 청년을 가리켜 다들 《총각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헌지에서 우리와 만난 신천군사람들은 저만큼 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몇해전 어느날 그 학교에 부모없는 한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교원들이 무심히 두고보는데 말이였지만 그는 그저 스쳐보낼수가 없었다. 그후 학생에 대한 그의 관심은 깊어졌다.
어느날 저녁 권순남청년은 어머니와 마주앉아 그 학생의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을 터놓았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하려는 그들의 결심을 어머니는 적극 지지해 주었다. 이렇게 그는 아버지가 되었었다.
어떻게 되어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을 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권순

남청년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처음으로 부모없는 학생을 데려온지 얼마후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청원 666명중 조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서 하신 연설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소년단지도원, 분단지도원선생님들을 크게 분고있다고, 선생님들이 항일의 아들단지도원들처럼 우리의 귀중한 소년단원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고 참담하게 이끌어주는 부러워 되고 진정한 스승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을 자자구 새겨보느라니 저의 눈앞에는 부모없는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명, 두명... 이렇게 부모없는 학생들을 두 데려왔으며 지금은 일곱남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총각의 몸으로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청년.
모두의 감동을 자아낸 미담의 주인공 권순남청년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했을뿐입니다.》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불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있는가. 20살꽃나이처럼 시절에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

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워온 나라를 감동시킨 강성의 《처녀어머니》,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 이름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 자기 피와 살을 사슴없이 바친 사람들, 외진 산골마을과 섬마을분교에서 학생을 묵묵히 바치며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그 길에서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 진정한 우리 조국화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미덕과 미용이 가공으로, 국공으로 되고 전체 인민이 서로 아끼고 위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참다운 사회제도이다.
문득 며칠전 어느 한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가 떠올랐다. 일본에서 혈육간에 죽일새끼를 하는 살인범죄가 계속 일어나고있다는 내용의 글이였다.
그에 따르면 지난 7일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38살 난 여성이 두 아들의 목을 졸라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지난해 학대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수는 그 전해에 비해 8.9% 늘어나 그 수가 무려 1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자처럼 키우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자기가 낳은 친자식도 목졸라죽이는 끔찍한 이야기는 너무나 상반되지 않는다.
본사기자 김춘경

대담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 김지홍 화학공업성 국장과의 대담 ◇
기자: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화학공업은 관건적인 고리로 되고있지 않습니까?
김지홍: 그렇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면 우리 나라에 없거나 모자라는 원료를 화학적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특히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경공업공장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대줄수 있으며 농사도 잘 지을수 있고 축산업과 파수업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때문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화학공업을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목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공업으로 그 위치와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기자: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우고 과학적인 작전을 펼치는데서 화학공업성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본다.
김지홍: 지난 시기의 일 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라의 화학공업을 추켜세울수 없다는것을 심하게 교훈으로 새기고 성의 모든 일군들이 새 출발을 하는 심정으로 화학공업발전을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나가고있다.
우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창설을 위한 전망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과학적인 타산밑에 선후차를 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우고 과학적인 작전을 펼치는데서 화학공업성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본다.
김지홍: 지난 시기의 일 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라의 화학공업을 추켜세울수 없다는것을 심하게 교훈으로 새기고 성의 모든 일군들이 새 출발을 하는 심정으로 화학공업발전을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나가고있다.
우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창설을 위한 전망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과학적인 타산밑에 선후차를 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경제조직사업을 혁신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지홍: 옳은 말이다. 첫째 작전에서부터 당대회사상과 정신을 옮겨 구현하여야 경제건설을 활기차게 내밀며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기자: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경제조직사업을 혁신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지홍: 옳은 말이다. 첫째 작전에서부터 당대회사상과 정신을 옮겨 구현하여야 경제건설을 활기차게 내밀며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성에서는 올해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할 대상들을 선정했으며 월별, 분기별로 선두목표도 세웠고 생산능력확장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기 위한 부서별과제를 명백히 분담하였다.
또한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밑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협동작전을 면밀하게 펼쳐나가고있다.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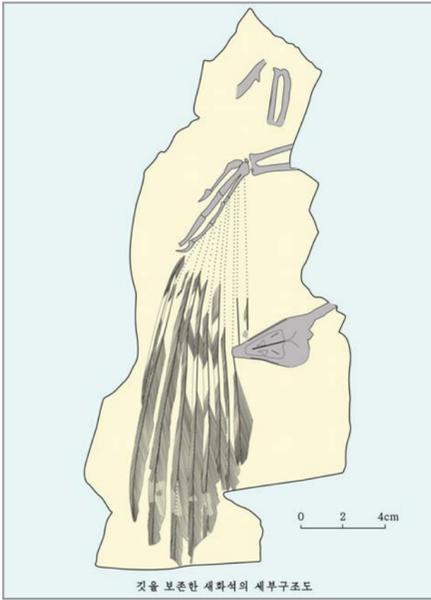
성에서는 모든 화학공장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중요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중생대의 새화석 발굴



것을 보존한 새화석



것을 보존한 새화석의 세부구조도

최근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중생대의 새화석이 발굴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 고생물학연구진은 백토동화석보호구의 위치를 새로 설정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심화시켜왔다.

이 과정에 백토동지구에 분포되어있는 중생대 백악기하세층에 속하는 신의주주층의 3번층(약 1억 3000만년전)에서 새의 대가리뼈, 발가락뼈, 날개의 1차날깃 11개와 작은 깃가지들까지 선명하게 보존

되어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화석을 찾아냈다. 연구자들은 날깃의 형태구조적 특징으로 볼 때 날아다니는데 적용된 새라는것을 학술적으로 고증하였다. 이와 함께 공룡이발화석과 원시포

유동물화석, 물고기화석 등을 발굴하고 지금까지 발굴된 척추동물화석, 무척추동물화석, 식물화석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백토동지구가 중생대의 우리 나라 모든 척추동물들이 출현한 곳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리고 중생대 백악기하세를 대표하는 신의주생물군을 새로 설정하고 우리 나라의 중생대 생태환경연구에서 학술적의미가 있는 백토동화석보호구를 다시금 새롭게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백토동지구에서 진행된 고생물학연구결과가 우리 나라의 중생대 백악기생물군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데서 학술적가치가 큰 연구성과라고 평가하였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화석으로 발굴된 중생대의 새를 《백토새》로 명명하도록 해주시고 유원지중국 자연박물관에 전시하여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교육효과와 과학연구사업에 리용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깃을 보존한 중생대의 새화석이 발굴고중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인류의 발생지일뿐아니라 조류의 발생지라는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확증할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것을 보존한 새화석의 깃가지와 작은 깃가지

공룡이발화석과 원시포유동물화석

물고기화석들

시조새구리화석과 익룡화석

속새류

고사리류

관중화석(별류)

관중화석(바리류)

관중화석(장지리류)

관중화석(대머리류)

관중화석(소털류)

관중화석(제민은털류)

3월의 절기로는 경칩과 춘분이 있다.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우리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어 꿈틀거리는 때라는 뜻이다.

춘분은 겨울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봄이 되는 절기라는 뜻인데 이때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진다.

이 시기에는 센 바람이 자주 불지만 날씨가 온화해지고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린다.

이 시기에는 센 바람이 자주 불지만 날씨가 온화해지고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린다.

이와 함께 봄갈이도 하고 감자와 참깨, 봄보리, 수박과 오이같은 농작물들과 봄

새화를 비롯하여 꽃모, 담배모, 나무모도 심으며 한해농사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들에 파릇파릇 돌아다니는 나물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으며 봄의 향취를 느끼었다.

대표적인 나물로 병이와 달래를 들수 있다. 병이는 잘게 썰어 죽을 쑤어먹으면 밥맛도 좋아지고 기력도 왕성해진다고 하면서 식생활에 많이 리용하였다.

달래는 식용뿐아니라 약재로도 널리 쓰이였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깨어 진사해두기도 하였으며 농사일의 흥을 돋구고 한해농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농악놀이도 진행하였다.

올해의 경칩은 3월 5일, 춘분은 3월 20일이다.

본사기자

3월의 절기와 민속

사화

고려청자에 깃든 이야기 (1)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 새과란 구슬처럼 광채나는 이 사기잔 푸르른 연기속에 얼마나 문혀있었나 ...

—리규보의 시 《푸른 사기잔》에서—

준품(고려의 년호)2년 초 여름 어느날이었다. 보리장마를 예고하는듯 무덥고 누기진 바람이 려성강기슭의 강유현 삼포말에도 불어왔다. 이어 온 하늘이 거무칙칙해지더니 후두둑 비방울을 뿌리기 시작했다. 허나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듯 집집들의 굴뚝으로는 연기가 꾸역꾸역 뿜어내었다. 삼포말에서 북으로 몇백보쯤 떨어진 나지막한 홍산에서도 연기가 굴뚝이 미여지게 쏟아져나오고있었다. 자기를 굽는 가마터에서 내뿜는 짙은 연기였다. 누군가 자기가마앞에 우뚝 서서 허공으로 솟구쳐오르듯 무겁고 짓눌리고 쫓겨오는듯 무겁게 주저앉아 땅바닥을 짹짹 밟으면서 서서히 사라

져버리는 시누런 연기를 하염없이 지켜보고있었다. 삼포말 자기가마소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향기장네의 아들인 왕공탁이었다. 예젊은 총각인 왕공탁은 사방으로 서서히 흩어져버리는 시누런 연기속에 어찌 있는 일을 그려보고있었다. 어제 아침 고향에 들이선 왕공탁은 흥산부러 찾았다. 자기가마에 이르니 마침 빗은 자기를 가마에 넣으려던 아버지가 반겨맞아주었다. 허나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인차 아버지는 두눈을 지름뜨고 엄하게 물었다. 《너 어찌된거냐?》 엄해진 아버지를 보느라니 저절로 목이 움츠러들었다. 왕공탁은 지난해 정초에 글을 배워야 한다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서경의 학사원에 들어갔다. 엄해진 아버지를 보느라니 저절로 목이 움츠러들었다. 왕공탁은 지난해 정초에 글을 배워야 한다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서경의 학사원에 들어갔다.

어붙었느냐?》 아버지의 노성에 왕공탁은 더욱 기가 죽어버렸다. 19살의 한창나이인데 늘씬한 키, 눈이 어글어글한 왕공탁은 엄한 아버지앞에서 꺾였었다. 아버지는 늦자식으로 본 의아를 아들들 열아들맞잡이로 키운다면서 엄하게 다스렸다. 하기에 왕공탁은 아직까지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 응석 한번 뿌려보지 못하였다. 왕공탁은 서경을 떠나오면서 열섯무반이나 외위두었던 말이었지만 겨우 열버섯이었다. 《저... 자기가마를 뜯어고 치려고... 그래서...》 《뭐, 자기가마를 뜯어고 쳐? 네가 환장을 했구나.》 하더니 아버지는 팔을 내저었다. 《그따위 허튼생각은 짝 건어치우고 래일 당장 돌아가라!》 아버지는 왕공탁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걸로 막사무굴로 떠나갔다. 고구려때 자기를 구웠다고 하는 막사무굴은 삼포말에서 북쪽으로 수십리 떨어진곳에 팔안인데 거기에 비석을 댄만한 좋은 흙이 있다는것이였다. 아버지의 노한 모습을 보던 왕공탁은 탄식해마지 않

역사유물

금동미륵 반가사유상



보통 잠을 설치거나 피로가 쌓이면 입안이 짹짹해지고 뾰루라지가 돌아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럴 때에는 소홀히 할수 없는 입안혈기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은 고구려시기의 귀중한 유물이다. 띠를 풀어머리를 두른 듯 등근 결상에 앉아서 오른발을 왼 다리무릎위에 올린 전형적인 반가사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오른손전반이 없어져 아쉽게는 하지만 뛰어난 조각수법을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 머리에는 삼산관을 썼으며

얼굴은 등돌다기보다 모난 형태에 가깝게 생겼다. 가냘픈 상반신에는 옷을 걸치지 않았으며 허리띠로 늘어진 옷주름은 반침대를 뒤덮고있다. 이 모든 양식은 이 시기 이웃한 겨레의 나라들인 백제, 신라의 반가사유상들과 매우 비슷하다.

본사기자

입안에 궤양이 생기면 자주 침이 마르고 대변이 굳으며 오줌색같이 불그스레한 누런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

은 위에 열이 물려있기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위에 있는 열을 떨구어야 증상을 없앨수 있다. 큰병을 앓은 뒤에 오는 허

열도 입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될수 있다. 또한 피로가 심해져 음식물의 소화흡수력이 떨어지면서

입안에 영양공급이 부족해지는것

도 입안혈기의 한가지 원인으로 된다. 이밖에 비타민B, C의 결핍과 알레르기가 그 원인으로 되기도 한다.

본사기자

에로부터 전해오는 민중악기

공후와 가야금

공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지란악기의 하나이다. 공후류 악기들은 세나라시기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소공후는 백제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공후는 그 크기와 주변에 따라 소공후와 수공후, 와공후로 나눈다.

수공후는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뜯거나 또는 오른손쪽허리띠에 꽂아 튕을 세워가지고 서서 연주하며 걸어가면서 연주하기도 한다.

수공후는 와공후와는 달리 세워놓고 연주하는 공후이다. ◆ 가야금은 여러줄로 된 뜯음줄악기이다. 본래 가야금은 오동나무속을 파내고 그것을 울림통으로 하여 그우에 12개의 줄을 매워 소리를 내었다. 그후에 우탄과 밀판을 서

로 다른 나무로 무어서 울림통을 조립하고 줄을 거는 꼬리부분을 붙이고 21줄로 늘여 지금과 같은 가야금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오늘 개량된 가야금은 부드럽고 우아하며 치량한 음색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넓은 음역과 풍부한 음량을 가지게 되었으며 민요적굴림기교들은 물론 그 어떤 음악도 다 연주할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떡

막걸이감자설기떡

이 떡은 막걸이감자에 난 알가루를 섞어 푸실푸실하게 반죽하여 당콩고물을 쪄켜이 넣고 찌서 만든 음식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자 150g일때 당콩 30g, 흰쌀가루 30g, 찹쌀가루 50g, 사탕가루 10g, 소금 1.8g을 준비한다.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 보드라운 채로 걸러 무거리는 꼭 짠다. 농마는 양금을 얹힌다. 그릇에 무거리, 양금얹힌 농마, 흰쌀가루, 찹쌀가루, 1g의 소금을 두고 손으로 잘 비비면서 덩어리가 지지 않게 푸실하게 반죽한다. 당콩은 폭 삶아서 사탕가루, 나머지 소

금을 두고 잘 섞은 다음 절구질을 한다. 여기에 막걸이반죽물의 일부를 섞어서 반죽물을 만든다. 시루에 김이 오를 때 막걸이반죽물과 당콩을 섞어 막걸이감자반죽물을 2~3cm 두께로 부린다. 김이 오르면 다시 당콩고물을 뿌리고 반죽물을 안친다. 이렇게 몇번 반복하여 안칠수 있다. 김이 다 오르면 시루에서 꺼내어 칼로 썰고 색을 맞추어 접시에 담아낸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오늘 뒤에는 래일이 있다. 오늘의 난관앞에 굴함없이 싸워 래일의 행복을 앞당겨 오라는 뜻. ◆ 남의 더운 밥이 내 식은 밥만 못하다. 남의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키질수 없는것만큼 남의 것보다 좀 못하더라도 자기것이 더 좋다는것을 이르는 말. ◆ 개미 천마리면 망들을 굴린다. 작은 힘이라도 여럿을 한데 합치면 큰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속시킬수 없는것만큼 남의 것보다 좀 못하더라도 자기것이 더 좋다는것을 이르는 말. ◆ 개미 천마리면 망들을 굴린다. 작은 힘이라도 여럿을 한데 합치면 큰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를 만들어내라는 유언을 남기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왕씨가문의 래력이 생각났다. 왕공탁이 어렸을적에 할아버지는 제 살처럼 아끼는 손자의 손목을 잡고 왕씨가문에 대한 말을 자장자처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의

당나라사람들이 한치두께에 크기가 반침들이나 되지만 무게는 세알같이 가볍다며 다투어 사간 안팎이 투명한 자색자기인 자배기도 다 왕씨가문이 만든것이였다. 왕씨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직은 세상에 없는 신비로운 보물자기를 만들려고 애써왔다. 신비로운 보물자기는 세상